

강진군, 불법소각 차단으로 산림 보호 '총력'

강진군산림조합,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사업 수행

최근 전국적으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농촌지역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진군산림조합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불 예방과 올바른 영농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 지원사업으로, 고춧대·과수 전정가지·갯대 등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부산물을 파쇄 처리해 불법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올해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강진군에서는 강진군산림조합이 사업 수행을 맡아 현장 중심의 안전처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논

독·밭두렁 소각은 병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전적 곤충까지 사라지게 해 생태계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토양 유기물 감소와 미생물 파괴,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하며, 건조한 날씨와 강풍 시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도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농부산물 파쇄 처리는 산불 예방은 물론, 파쇄물을 퇴비화하거나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유기물 공급과 토양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진군산림조합은 산림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농가와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하고 있다.

윤길식 조합장은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한 농작업이 아니고 오히려 산불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농업인들은 관행적인 소각 대신 반드시 파쇄 처리 지원을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예방은 행정기관만의 노력이 아닌, 농업인의 인식 전환과 실천이 함께할 때 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강진군산림조합은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불 없는 안전한 강진,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곡성군, 불향 따라 걷는 여행

석곡 흑돼지숯불구이에서 대항강·오일장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곡성군 석곡면은 저만치 비껴 서 있다. 스쳐 지나가는 길목처럼 보이지만, 차에서 내려 골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 달라진다.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먼저 여행객을 맞는다.

곡성군 석곡면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흑돼지숯불구이다. 천천히 익어가는 고기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이곳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고기, 부담스럽지 않은 기름기와 깊은 풍미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별미로 자리 잡았다.

길은 바뀌었지만, 석곡의 맛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 매력은 식탁 위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 불향으로 완성되는 여행, 석곡 흑돼지숯불구이

숯불 위에 석쇠를 올리고, 양념장을 덧발라가며 타지 않게 고루 익혀낸다. 불계 달아오른 숯불 위에서 고기가 천천히 숨을 고르듯 익어가고 훈연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

고추장에 매실과 꿀을 더한 양념은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잡고, 매콤 달콤한 맛을 부드럽게 끌어올린다. 삼위에 한 점 올려 입에 넣는 순간 불향과 육즙이 어우러지며 석곡이라는 지

명이 자연스럽게 각인된다.

오랜 세월 이어온 손맛은 그렇게 한 점의 숯불구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래서 석곡을 말할 때면 흑돼지숯불구이가 먼저 떠오른다.

■ 자연 속에서 걷는 시간, 대항강 출렁다리

숯불구이로 든든히 배를 채운 뒤 천천히 걸으면, 입안에 남은 여운 위로 강바람이 스며들며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게 한다.

석곡면과 인접한 죽곡면의 대항강 출렁다리는 물과 숲이 어우러진 고요한 풍경을 품고 있다. 출렁다리 위에서 서면 강과 들녘, 멀리 이어지는 산세가 한눈에 펼쳐진다.

그 순간 여행은 식도락에서 자연으로 한 거의 기억은 한 장면의 풍경으로 이어진다.

■ 석곡 오일장의 정겨움

석곡 오일장은 5일과 10일에 선다. 장날이면 석곡은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소박한 농산물과 손수 만든 먹거리가 오가고 이웃의 안부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오일장에는 도시에서 쉽게 마주하기 어려운 온기가 흐른다.

한 점의 숯불구이에서 시작해 강을 건너 장터를 거니는 시간, 먹고·걷고·쉬는 하루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곡성/이정수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고흥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으며, 고흥군은 약정 이자율 중 연 3%에 해당하는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2년

고흥군, 소상공인 경영안전 위해 융자금 이자부담 완화 나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융자 가능, 2년간 연 3% 이자 지원 혜택

거처 일시 상환이며, 이번 지원은 선정 이후 실행되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된다.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 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고흥군청 경제산업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후 고흥군과 협약된 8개 금융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해 융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협약된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흥진지부 ▲광주은행 고흥지점 ▲고흥농협 ▲고흥군수협 ▲고흥새마을금고 ▲녹동새마을금고 ▲우주새마을금고 ▲녹동신협 등 8개 금융기관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과 휴·폐업 사업자, 지방세·국세 체납 사업자,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용 중인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

자료 제출이나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시에는 이자차액 보전금이 환수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고흥군청 경제산업과(061-830-5353), 전남신용보증재단 순천지점(061-830-0629)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경제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영암군이 23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년 연속 혁신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 혁신평가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로 구성돼 있고, 각 항목은 △기관장 혁신리더십 △혁신활동 참여 및 성과 확산 노력 △대표 혁신과제 등 10개 지표로 나누어 있다.

영암군, 행안부 지방정부 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월출페이·주민소통·돌봄서비스·인재양성 등 군민 체감 혁신 인정

특히, 올해는 이재명 정부의 혁신 방향에 맞춰 소통·협력,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주요 지표에 반영됐다.

이번 평가는 이런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단 심사, 국민체감도 조사 등으로 지방정부의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영암군은 ◇영암형 지역화폐 '월출페

이' ◇다양한 주민 소통 창구 운영 ◇맞춤형 돌봄서비스 ◇인공지능·디지털 중심 인재양성 등을 혁신 성과로 인정받았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현장 중심 정책 설계·집행으로 혁신 성과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완도군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완도군, 귀농·귀촌인 정착 돕는 정책 눈길

주택 수리비·창업 지원, 귀농·귀촌 희망학교 등 운영

농어·귀촌 희망자들이 완도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귀농·귀어인의 집', '전남형 만원 세컨 하우스' 등 임시 거주지 지원 외에도 '장기 체류 체험형 숙소'를 조성해 정착을 돕는다.

이사비(가구당 50만 원)와 주택 수리비(최대 500만 원)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의 주택 구입·창업을 돕고자 주거와 창업 융자를 동시에 지원하고,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농수산물 가공업이나 유통업 등 성공적인 창업 사례들이 늘고 있다.

귀농·귀촌인 연합회 등 모임을 육

성하고 농촌 생활과 귀농·귀촌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는 '동네 작가'를 운영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어울림 마을'도 조성한다.

완도는 수산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만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인들을 연차 별로 지원하여 기반 마련을 돕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 귀촌인이 순조롭게 정착해 완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광양시 보건소, 2026년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광양시 보건소는 성장기 아동이 올바른 건강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건강교육 공간인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운영한다.

'어린이 건강체험관'은 아동이 건강에 대한 흥미와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체험관은 ▲영양 ▲비만 예방 ▲구강건강 ▲금연·금주 ▲정신건강 등 다양한 건강 주제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놀이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특히 직접 보고, 만지고, 참여하는 활동 중심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체험관은 광양시 보건소 1층 별관에 마련됐으며, 운영 기간은 3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체험은 1일 1회,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되며 희망 20명 내외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광양시청 누리집 '통합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797-4105)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헛살 같은 일과도 기쁘게 할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기억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범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색감처럼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헛살 같은 일과도 기쁘게 할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기억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범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